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3(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의 표현이 상황에 따라 어떤 효과를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란다. 특히 **문장 성분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유의할 점들이 자주 출제된단다.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당하는지**를 살피면 된단다. 예를 들어 '유미가 경미를 잡다'는 능동이지만, '경미가 유미에게 잡히다'는 주어인 경미가 동작을 당하는 것이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단다.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피동 표현은 어떻게 만드나요?

피동 표현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를 붙이거나, **명사 뒤에 접사 '-되다'**, 혹은 **어간 뒤에 '-아/어지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단다. 이때 '쓰여지다'처럼 피동 요소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이중 피동은 적절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



그냥 능동 표현만 쓰면 편할 것 같은데, 피동 표현은 왜 사용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구나. 피동 표현은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거나,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숨기고 싶을 때 효과적이란다. 또한 뉴스처럼 **객관적인 인상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이지.





인용 표현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며 **큰따옴표와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면 직접 인용이란다. 반면 **따옴표 없이** 말의 뜻만 살려 **자신의 관점에서 조사 ‘고’를 사용하여** 옮기면 간접 인용이 되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문장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말하는 이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 인용의 ‘나’가 간접 인용에서는 ‘자기’나 ‘그’로 바뀔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해.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3(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학생1: 남자가 고양이를 내쫓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야.

학생2: 고양이가 남자에게 내쫓기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야.

- 학생들이 그림 속 장면을 다르게 설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1은 '남자'에, 학생2는 '고양이'에 주목하고 있다.
- 학생1은 '남자'에, 학생2는 '고양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지수: (준서에게) 도서관 안이니까 조용히 하자.

준서: 앗. 미안!

민아: 준서야, 지수가 뭐라고 말한 거야?

준서: 도서관 안이니까 조용히 하자.

민아: 나 시끄러웠어?

준서: 아니, 민아 네가 지수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몰았잖아.

- 준서와 민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 준서는 지수의 말을 그대로 옮겨 말한 것인데, 민아는 준서가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준서가 지수의 말만 그대로 옮겨 민아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지문 분석

◎ 다음 활동을 하며 피동 표현에 관해 알아보시다.

[슬래잡기를 하는 유미와 친구들]

㉠ 유미(행위를 한 주체)가 경미를 잡다.(능동 표현. 능동문)

㉡ 경미(행위를 당한 대상)가 유미에게 잡히다.(피동 표현. 피동문)

(1) ㉠과 ㉡에서 주어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각 문장의 주어가 행위를 하는지, 행위를 당하는지를 표시해 봅시다.

	주어	행위
㉠	유미가	행위를 하다.
㉡	경미가	행위를 당하다.

(2) (1)을 바탕으로 하여 ‘잡다’와 ‘잡히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봅시다.

‘잡다’는 주어가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잡히다’는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와 ㉡를<보기>로 제시하여 ‘㉠와 달리 ㉡는 주어가 남에게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3) ㉠을 ㉡로 바꿀 때 달라지는 점을 살펴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의 주어 ‘유미가’가 ㉡에서는 ‘유미에게’로 바뀌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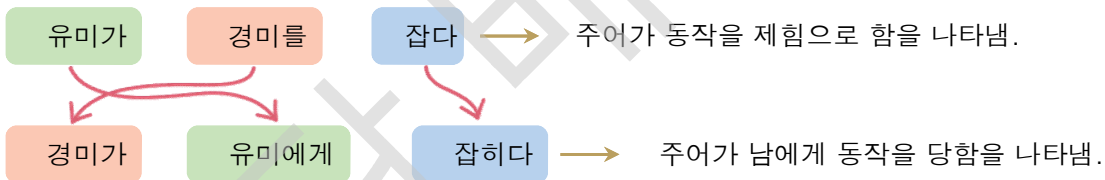
㉠의 목적어 ‘경미를’이 ㉡에서는 ‘경미가’로 바뀌었어.

㉠의 서술어 ‘잡다’가 ㉡에서는 ‘잡히다’로 바뀌었어.

(㉠와 ㉡를<보기>로 제시하여 ‘㉡를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주어가 바뀐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는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는 표현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표현(능동 표현의 개념)을 능동(能動) 표현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피동 표현의 개념)을 피동(被動) 표현이라고 한다.



◎ 다음 활동을 하며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보기	능동 표현	피동 표현
	눈이 산을 덮다.	산이 눈에 덮이다.
	형이 동생을 업다.	동생이 형에게 업히다.
	모기가 남호를 물다.	남호가 모기에 물리다.
	경찰이 도둑을 쫓다.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능동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ADD8E6;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이-’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44336;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피동 표현</p>
별이 호랑이를 <u>쏘</u> 다.	‘-이-’ 사용
고래가 새우를 <u>먹</u> 다.	‘-히-’ 사용
경미가 유미를 <u>밀</u> 다.	‘-리-’ 사용
아빠가 아기를 <u>안</u> 다.	‘-기-’ 사용

호랑이가 별에 쏘이다. 새우가 고래에게 먹히다. 유미가 경미에게 밀리다. 아기가 아빠에게 안기다.

• 피동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붙임표(-)를 붙여 표기하며, 붙임표 자리(피동 접사의 앞과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됨을 나타냄.

(<보기>를 제시한 문제에서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업히다”에 사용된 피동 접사와 같은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접사 ‘-되다’**(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능동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ADD8E6;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되다’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44336;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피동 표현</p>
과학자가 가설을 <u>증명</u> 하다.	‘-되다’ 사용	가설이 (과학자에 의해) <u>증명</u> 되다.
고고학자가 유물을 <u>발견</u> 하다.	‘-되다’ 사용

유물이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사용되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묻는 문제에서 ‘그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아/어지다’**(연결 어미 ‘-아/어’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구성. 동사 뒤에서 ‘-아/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냄.)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능동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ADD8E6;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아/어지다’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44336;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피동 표현</p>
아이가 물을 <u>쏟</u> 다.	‘-아/어지다’ 사용	물이 (아이에 의해) <u>쏟</u> 아지다.
목수가 의자를 <u>만들</u> 다.	‘-아/어지다’ 사용	의자가 (목수에 의해) <u>만들</u> 어지다.

능동 표현

시우가 달걀을 삶다.

도예가가 도자기를 빚다.

‘-아/어지
다’
사용

‘-아/어지
다’
사용

피동 표현

달걀이 (시우에 의해) 삶아지다.

도자기가 (도예가에 의해) 빚어지다.

(“삶아지다”는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ㅌ’이기 때문에 ‘-아지다’를 사용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1: ‘실이 끊기다’와 ‘실이 끊어지다’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이지?

학생2: 피동 표현으로 둘 다 맞아.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피동 표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능동사)**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예) 덮다 - 덮이다, 업다 - 업히다, 물다 - 물리다, 쫓다 - 쫓기다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 증명되다

• ‘-아/어지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 쓸다 - 쓸아지다, 만들다 - 만들어지다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3(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학생1: 남자가 고양이를 내쫓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야.

학생2: 고양이가 남자에게 내쫓기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야.

- 학생들이 그림 속 장면을 다르게 설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주목하고 있는 _____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1은 '남자'에, 학생2는 '고양이'에 주목하고 있다.
- 학생1은 '남자'에, 학생2는 '고양이'에 _____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지수: (준서에게) 도서관 안이니까 조용히 하자.

준서: 앗. 미안!

민아: 준서야, 지수가 뭐라고 말한 거야?

준서: 도서관 안이니까 조용히 하자.

민아: 나 시끄러웠어?

준서: 아니, 민아 네가 지수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몰았잖아.

- 준서와 민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 준서는 지수의 말을 _____ 옮겨 말한 것인데, 민아는 준서가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준서가 지수의 말만 그대로 옮겨 _____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지문 확인

◎ 다음 활동을 하며 피동 표현에 관해 알아보시다.

[슬래잡기를 하는 유미와 친구들]

㉠ 유미(행위를 한 _____)가 경미를 잡다.(능동 표현. _____)

㉡ 경미(행위를 당한 _____)가 유미에게 잡히다.(_____ 표현. 피동문)

(1) ㉠과 ㉡에서 주어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각 문장의 주어가 행위를 하는지, 행위를 당하는지를 표시해 봅시다.

	주어	행위
㉠	_____가	행위를 하다.
㉡	_____가	행위를 당하다.

(2) (1)을 바탕으로 하여 '잡다'와 '잡히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봅시다.

'잡다'는 주어가 행위를 _____ 것을 나타내고, '_____ '는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과 ㉡를<보기>로 제시하여 '㉠과 달리 ㉡는 주어가 남에게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3) ㉠을 ㉡로 바꿀 때 달라지는 점을 살펴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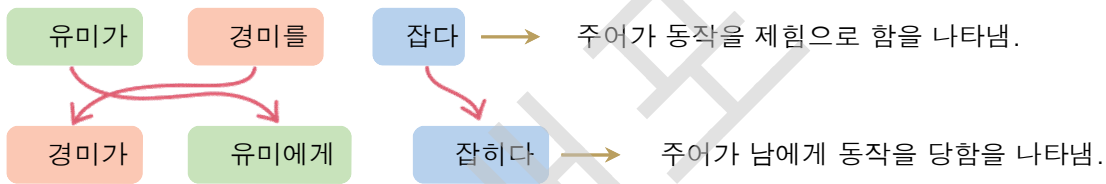


- ㉠의 주어 '유미가'가 ㉡에서는 '유미____'로 바뀌었어.
- ㉠의 목적어 '경미를'이 ㉡에서는 '____가'로 바뀌었어.
- ㉠의 서술어 '잡다'가 ㉡에서는 '____다'로 바뀌었어.

(㉠와 ㉡를<보기>로 제시하여 '㉡를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주어가 바뀐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는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는 표현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표현(____ 표현의 개념)을 능동(能動) 표현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____ 표현의 개념)을 피동(被動) 표현이라고 한다.



㉢ 다음 활동을 하며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일부 동사 _____ 뒤에 붙어 '____'의 뜻을 더하는 _____)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능동 표현		피동 표현
눈이 산을 <u>덮</u> 다.	·'-이-' 사용	산이 눈에 <u>덮</u> 이다.
형이 동생을 <u>업</u> 다.	·'-히-' 사용	동생이 형에게 <u>업</u> 히다.
모기가 남호를 <u>물</u> 다.	·'-리-' 사용	남호가 모기에 <u>물</u> 리다.
경찰이 도둑을 <u>쫓</u> 다.	·'-기-' 사용	도둑이 경찰에게 <u>쫓</u> 기다.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능동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ADD8E6;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이-’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44336;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피동 표현</p>
벌이 호랑이를 <u>쏘</u> 다. ----- 고래가 새우를 <u>먹</u> 다. ----- 경미가 유미를 <u>밀</u> 다. ----- 아빠가 아기를 <u>안</u> 다.	‘-이-’ 사용 ----- ‘-히-’ 사용 ----- ‘-리-’ 사용 ----- ‘-기-’ 사용	----- ----- ----- -----		

호랑이가 벌에 _____, 새우가 고래에게 _____, 유미가 경미에게 _____, 아기가 _____ 안다.

• 피동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는 ‘_____ 형태소’이므로 _____(-)를 붙여 표기하며, 붙임표 자리(피동 접사의 앞과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됨을 나타냄.

(<보기>를 제시한 문제에서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업히다”에 사용된 피동 접사와 같은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접사 ‘-되다’**(일부 _____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_____)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보기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능동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ADD8E6;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되다’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9800;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피동 표현</p>
	과학자가 가설을 <u>증명</u> 하다. ----- 고고학자가 유물을 <u>발견</u> 하다.	‘-되다’ 사용 ----- ‘-되다’ 사용	가설이 (과학자에 의해) <u>증명</u> 되다. ----- ----- ----- -----		

유물이 (고고학자에 의해) _____.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사용되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묻는 문제에서 ‘그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아/어지다’**(_____ 어미 ‘-아/어’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구성. 동사 뒤에서 ‘-아/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_____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_____을 _____을 나타냄.)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보기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능동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ADD8E6;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아/어지다’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9800; color: white;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피동 표현</p>
	아이가 물을 <u>쏟</u> 다. ----- 목수가 의자를 <u>만들</u> 다.	‘-아/어지다’ 사용 ----- ‘-아/어지다’ 사용	물이 (아이에 의해) <u>쏟</u> 아지다. ----- 의자가 (목수에 의해) <u>만들</u> 어지다.		

능동 표현

시우가 달걀을 삶다.

도예가가 도자기를 빚다.

‘-아/어지
다’
사용
‘-아/어지
다’
사용

피동 표현

달걀이 (_____ 의해) 삶아지다.

도자기가 (도예가에 의해) _____.

(“삶아지다”는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_’이기 때문에 ‘-아지다’를 사용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1: ‘실이 끊기다’와 ‘실이 끊어지다’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이지?

학생2: 피동 표현으로 둘 다 맞아.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피동 표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동사)**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예) 덮다 - 덮히다, 업다 - 업히다, 물다 - 물리다, 쫓다 - 쫓기다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 증명되다

• ‘-아/어지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 쏘다 - 쏘아지다, 만들다 - 만들어지다

지문 확인

◎ 다음 활동을 하며 인용 표현에 관해 알아봅시다.



(1) **가**와 **나**는 남호의 말을 옮긴 표현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조사를 골라 봅시다.

가	나
남호가 유미에게 “유미야, 운동장에서 축구하자.”() 말했다.	남호가 유미에게 운동장에서 축구하자() 말했다.

(‘나’와 달리 (가)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1)의 **가**와 **나**는 각각 남호의 말을 어떻게 옮긴 표현인지 생각해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봅시다.

가는 남호의 말을 () 옮긴 표현이고, **나**는 남호의 말을 () 옮긴 표현이다.

(3)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봅시다.

가는 _____ 와 조사 ‘이’라고 써서 남호의 말을 그대로 옮겼고, **나**는 조사 ‘_’를 써서 남호의 말을 바꾸어 옮겼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 옮긴 것은 직접 인용이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4) 다음 대화를 (1)의 **가**와 **나**를 참고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옮겨 써 봅시다.



가	- 유미가 경미에게 “경미야. 주말에 만나서 같이 _____”라고 말했다. - 경미가 유미에게 _____라고 말했다.
나	- 유미가 경미에게 주말에 만나서 같이 _____ 말했다. - 경미가 유미에게 _____ 말했다.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인용의 _)을 인용이라고 한다. 인용 표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인용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 뜻을 살리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바꾸어 옮기는 간접 인용이 있다.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조사 ‘(이)라고’를 써서 표현하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한다.] ([]: 인용 표현을 만드는 ____. ‘직접 인용은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는 반면 간접 인용은 조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다음 활동을 하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칭 대명사에 유의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봅시다. <p>시우가 경미에게 “나(_____, 시우의 입장에서 ‘나’는 시우를 가리킴.)도 같이 농구하고 싶어.”라고 말했다.</p> <p>→ 시우가 경미에게 자기(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_____ 대명사.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인칭 대명사가 바뀐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도 같이 농구하고 싶다고 말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 표현에 유의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봅시다. <p>시골에 간 유미는 “이(말하는 이에게 _____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_____) 마을이 마음에 들어.”라고 말했다.</p> <p>→ 시골에 간 유미는 그(_____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 마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p>



• 높임 표현에 유의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봅시다.

남호가 아버지께 “**제**(남호가 말한 ‘제’는 _____를 가리킴.)가 설거지를 **했어요**(_____체: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비격식체임. ‘종결 표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남호가 아버지께 자기가 설거지를 했다고 말씀드렸다.



• 시간 표현에 유의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봅시다.

지난주에 경미가 “**다음 주**(_____를 기준으로 할 때 _____를 가리킴.)에 꼭 영화 보러 가자.”라고 약속했다.

→지난주에 경미가 이번 주에 꼭 영화 보러 가자고 약속했다.

[간접 인용을 할 때 유의할 점]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암기용

1.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개념	주어가 답 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 을 나타내는 표현
만드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를 붙여서 만들.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만들. • '-아/어지다'를 사용하여 만들.

2.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차이점

능동 표현	피동 표현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 으로 함을 나타냄.	주어가 답 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 을 나타냄.

3.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거나 행동의 주체를 숨길 수 있음. •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상대에게 심적 부담을 덜 주며 표현할 수 있음.

4. 인용 표현의 종류

개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 의 말이나 글에 끼어 쓴 표현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 표현 •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 뜻을 살리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바꾸어 옮긴 표현

5.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큰따옴표 를 사용함.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 음.
조사 '(이)라고'를 사용함.	조사 ' 고 '를 사용함.
생생한 느낌을 줌.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줌.

6.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유의점

-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
- 인물, 시간, 장소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 표현
- 듣는 사람을 높이 는 높임 표현
- 말한 시점과 인용한 시점 의 시간 표현

7. 인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끼어 쓰므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 •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으로 내용을 뒷받침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TEST 1단계

1.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개념	□어가 □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
만드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와 같은 피동 □사를 붙여서 만듦. • 피동 접사 ‘-□다’를 사용하여 만듦. • ‘-□/어지다’를 사용하여 만듦.

2.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차이점

□동 표현	□동 표현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힘으로 함을 나타냄.	주어가 □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함을 나타냄.

3.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을 당하는 □상을 □조하거나 행동의 □체를 □길 수 있음. • 내용이 □관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상대에게 □적 □담을 덜 주며 표현할 수 있음.

4. 인용 표현의 종류

개념	□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신의 말이나 글에 □어 쓴 표현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대로 옮긴 표현 • □접 인용: □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 □을 살리면서 자신의 □점에서 □꾸어 옮긴 표현

5.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따옴표를 사용함.	따옴표를 사용하지 □음.
□사 ‘(이)라고’를 사용함.	조사 ‘□’를 사용함.
□생한 느낌을 줌.	매끄럽고 □결한 느낌을 줌.

6.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칭 □명사 - 인물, 시간, □소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시 표현 - 듣는 사람을 □이는 □임 표현 - 말한 시점과 인용한 □점의 □간 표현

7. 인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적 자료나 □문가의 의견을 끌어 쓰으로써 □득력을 높일 수 있음. • 객관적 □료와 전문가의 □견으로 내용을 □받침하여 □뢰도를 높일 수 있음.

O / X 문제

【1~10】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능동 표현이라 한다. (O / X)

2.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 한다. (O / X)

3.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로 바뀐다. (O / X)

4.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O / X)

5.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 중 하나는 객관적 인상을 주기 위해서이다. (O / X)

1. O 2. O 3. O 4. X 5. O

중2-1
국어
천재(정)

2027 중2-1 국어 천재(정) | 3(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학생1: 남자가 고양이를 내쫓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야.

학생2: 고양이가 남자에게 내쫓기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야.

- 학생들이 그림 속 장면을 다르게 설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지수: (준서에게) 도서관 안이니까 조용히 하자.

준서: 앗. 미안!

민아: 준서야, 지수가 뭐라고 말한 거야?

준서: 도서관 안이니까 조용히 하자.

민아: 나 시끄러웠어?

준서: 아니, 민아 네가 지수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몰았잖아.

- 준서와 민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핵심 정리

지문

1. 다음 활동을 하며 피동 표현에 관해 알아보시다.

[술래잡기를 하는 유미와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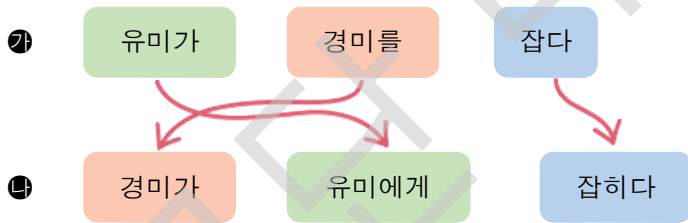
㉠ 유미가 경미를 잡다.
 ㉡ 경미가 유미에게 잡히다.

(1) ㉠과 ㉡에서 주어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각 문장의 주어가 행위를 하는지, 행위를 당하는지를 표시해 봅시다.

	주어	행위
㉠		행위를 하다.
㉡		행위를 당하다.

(2) (1)을 바탕으로 하여 ‘잡다’와 ‘잡히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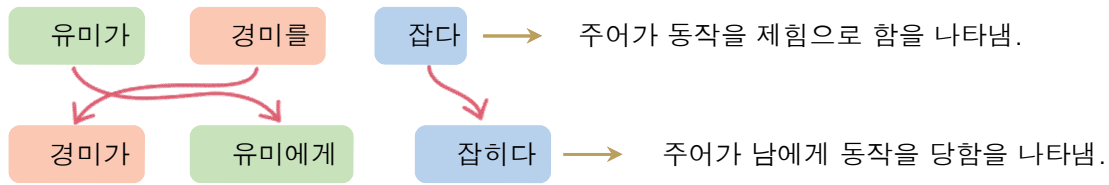
(3) ㉠을 ㉡로 바꿀 때 달라지는 점을 살펴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 ㉠의 주어 ‘유미가’가 ㉡에서는 ‘ ’로 바뀌었어.
- ㉠의 목적어 ‘경미를’이 ㉡에서는 ‘ ’로 바뀌었어.
- ㉠의 서술어 ‘잡다’가 ㉡에서는 ‘ ’로 바뀌었어.

[피동 표현]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능동(能動) 표현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被動) 표현이라고 한다.



2. 다음 활동을 하며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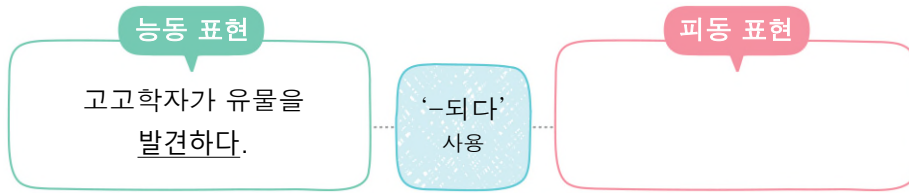
(1)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능동 표현	피동 표현
눈이 산을 <u>덮다</u> .	산이 눈에 <u>덮이다</u> .
형이 동생을 <u>엮다</u> .	동생이 형에게 <u>엮히다</u> .
모기가 남호를 <u>물다</u> .	남호가 모기에 <u>물리다</u> .
경찰이 도둑을 <u>쫓다</u> .	도둑이 경찰에게 <u>쫓기다</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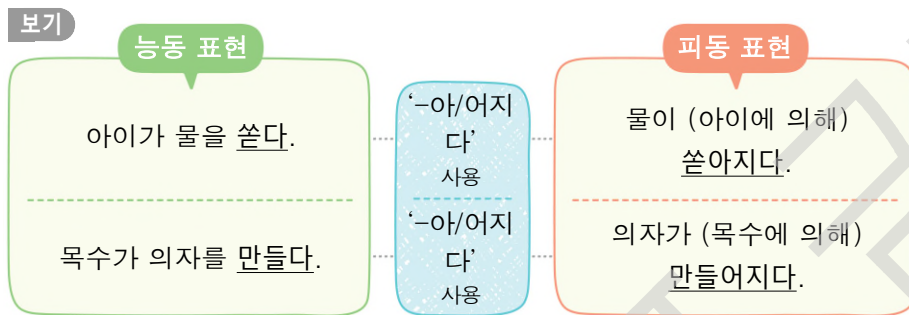
능동 표현	피동 표현
벌이 호랑이를 <u>쏘다</u> .	
고래가 새우를 <u>먹다</u> .	
경미가 유미를 <u>밀다</u> .	
아빠가 아기를 <u>안다</u> .	

(2)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능동 표현	피동 표현
과학자가 가설을 <u>증명하다</u> .	가설이 (과학자에 의해) <u>증명되다</u> .



(3) <보기>를 참고하여 ‘-아/어지다’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학생1: ‘실이 끊기다’와 ‘실이 끊어지다’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이지?

학생2: 피동 표현으로 둘 다 맞아.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피동 표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예) 덮다 - 덮이다, 업다 - 업히다, 물다 - 물리다, 쫓다 - 쫓기다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 증명되다

- ‘-아/어지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 쏘다 - 쏘아지다, 만들다 - 만들어지다